

# 상처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한다

우선 상처가 났을 때 가벼운 상처는 별 문제이나, 본인이나 주위 사람이 놀라는 것은 출혈인데 건강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출혈해도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출혈하는 부위를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봉대로 압박하여 두면 대부분의 경우 혈액응고 기전으로 수분 후에 지혈되는데 지혈 목적으로 흔히 흡이나 담배를 비벼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부서운 파상풍은 물론 상처의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금해야 된다.

## 너무 꼭 잡아매면 신경마비가

어느 정도 기다려도 출혈이 멎지 않을 때 상처 부위 보다 근위 부위에, 예를 들면

손을 다쳤을 때 팔목, 발을 다쳤을 때 무릎 아래에 압박 붕대를 감는데 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꼭 졸라 매어 신경마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너무 느슨히 매어 지혈 효과가 없는 경우를 주의해야 된다.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속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숨쉬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주고 상처 부위의 출혈을 방지하고 통증을 없애 주어야 된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 준다든지, 부목이나 신문지를 말아서 상처 부위의 관절을 포함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함으로써 아픈 통증을 덜어 주어야 한다.

## 상처에 따른 적절한 조치

상처의 상태가 타박상이면 안정을 하면 시일경과로 자연 치유되고 가벼운 찰과상 정도면 부위의 흠 같은 오염물을 깨끗한 물로 여러번 씻어 내고 자극성이 없는 소독약으로 처리한 다음 깨끗한 헝겊으로 매어 두어도 큰 이상은 안 생기지만, 상처의 양상이 자상일 경우 심부의 연부조직 손상을 알 수 없고, 열창이나 뿌리창 같은 때는 혈관, 신경, 심줄, 인대나 그외 연부 조직 손상을 동반하지 않았나 주의해야 한다.

## 너무 겁을 먹어도, 경솔해서도 안된다.

일반적으로 병에 대하여 너무 겁을 먹거나 경솔하게 취급하여 시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상처를 너무 경솔하게 취급하여 중요한 신경이나 심줄을 봉합하



▲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출혈해도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으므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주도록 한다.

지 않거나 감염등 합병증으로 후일 일생 불구를 면치 못하는 예가 흔히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상처가 나면 흙, 돌가루, 유리 조각, 나무조각등으로 오염되거나 이물이 상처 속에 들어 갈수 있으니 수술 시 육안으로나 X-선 검사로 제거하고 변연 절제술로 감염을 방지해야 된다.

상처가 나면 가능한 한 속히 봉합할수록 감염될 위험성이 적어지는데 굳이 상처에 오염되어 증식하고 연부조직 속으로 깊숙히 침투되는 시간이 6~8시간이 소요되므로 6시간 내에 오염된 상처를 깨끗이 닦고 이물제거, 변연절제술 후 봉합해야 된다.

만일 감염될 가능성이 많거나 좌멸창 같이 연부조직 괴사 부분이 많은 경우 지연

이차 봉합을 요하며 괴사된 조직이나 생존할 가망이 없는 조직은 여러가지 검사 방법으로 식별하여 제거하고 봉합해야 된다.

봉합 후 상처 반흔에 대하여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면 같은 노출부위의 반흔은 보기 흉하지 않도록 되도록 가는 봉합사로 정확하게 봉합하고 봉합사로 인한 반흔을 없애기 위하여 피하 조직을 가는 깡곳으로 봉합한 후 4일내에 피부 봉합사를 제거하면 된다.

특히 수부의 심줄(건)이나 신경손상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권한다.